

‘광주다움 통합돌봄’ 취약계층 곁으로 더 가까이

광주시, 현장 사례발표회...다양한 정책·효과 등 공유 4개월만에 5748건 접수...인력·서비스 비용 등 숙제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복지 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우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행 4개월 만에 5748건의 돌봄 요청이 접수됐다. 선제적 의무방문까지 1만4874건의 현장방문 활동을 펼쳐 5188명의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돌봄 서비스의 협업 서비스가 두드러졌고, 자원봉사자와 주민들까지 팔을 걷고 나서 도움을 주는 등 광주만의 나눔·연대의 공동체 정신이 빛이 났다는 평가다.

최근 광주 남구 봉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사례 발표회에서는 이 같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다양한 사례와 효과 등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봉선1동 이지혜·나경연 주무관은 홀로 살며 극심한 허리통증을 앓고 있는 A씨에 대

한 서비스 사례를 발표했다. 용변도 제대로 보지 못해 악취와 벌레로 고생하고 있는 A씨에 대해 우선 대청소와 방역 서비스를 제공했고, 영양실조가 심각해 식사도 지원했다. 여기에 방문 목욕 지원과 방문 진료를 연계하는 등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의 협업이 빛나는 사례로 꼽힌다. 또한 ▲어려움을 처한 시민을 찾고 함께 도와준 주민들 ▲가정방문을 통해 필요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계한 담당 공무원 ▲열악한 환경임에도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한 민간서비스기관 등이 삼위일체가 돼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광주 공동체의 힘으로도 이어졌다는 평가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장애 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세한 논의가 이어졌다. 알코올중독으로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임원하면서 집에 홀로 남은 초등학생 B군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가사·식사 지원으로 학교를 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다. 퇴원한 아버지는 중독관리센터와 연계해 상담치료와 금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고,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가족센터에 연계 자녀 돌보기 교육도 지원했다. 가족센터와 협업해 공부방도 만들고, 아동의 꿈이었던 가족 여름휴가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봉선1동 서순섭 주무관은 “기존 제도로는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인데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아동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줄 수 있었다”며 “긴급돌봄 이후에도 여러 기관과 협력해 가족이 행복과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식사 지원기관인 오색빛협동조합 김은희 대표와 대청소 등 주거편의를 지원하는 데크리하우징 장성용 대표, 신재생하우징 장성현 대표 등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현장에서 겪은 보람과 어려움을 나누며 서로를 응원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사각지대 발굴·다양한 서비스연계 가능해져 보람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회에서는 적절한 서비스 비용과

서비스 인력 문제 등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으로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다. 이들도 동등한 인간적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 통합돌봄 정책이다”며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다. 광주가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광주에서 통합돌봄 정책을 성공시켜 대한민국의 보편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일선 현장에 있는 동행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공무원과 민간서비스기관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한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되 부족한 틈새는 ‘광주+돌봄’ (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등 7대 분야)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2학기 미래세대 물교실

광주환경연합, 참여 학교 모집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기후위기 시대 인간에게 필수적인 물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2학기 미래세대 물교실’에 참여 할 학교와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세대에게 물 교육을 통해 가뭄과 홍수 등 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세대 물교육은 올 10월까지 운영되며, 물교육 전문강사 10여명이 학교(기관)를 방문, 교실에서 대면수업으로 진행된다. 대상 학생별로 나누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은 80분, 중·고등학교는 90분~100분 수업으로 운영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물의 여행’, 고학년은 ‘슬기로운 물생활’, 청소년은 ‘소중한 물 이야기’를 주제로 기후변화와 물재해(홍수와 가뭄), 물절약과 물순환을 통해 수자원을 슬기롭게 사용하고 다스리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미래세대 물교실에 참여는 선착순이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와 기관은 광주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화로 신청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



‘나답게 FUN FUN’ 일일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 장성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캠프가 끝난 뒤 선물받은 물품을 들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대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제공>

남부대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편!편! 일일캠프’ 성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나만의 칼림바·레크리에이션 진행

여름방학을 맞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일일 캠프가 열렸다.

남부대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은 ‘나답게 FUN FUN’ 일일캠프가 성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2023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복권기금 사업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으로 마련돼 지난 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열렸다. 캠프의 취지는 나답게 성장하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계선 지능 아

동(느린학습자)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이다. 캠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장성군 청소년수련관에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장성군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 느린학습자 아동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복공체험 ‘나만의 칼림바(나무 상자나 박, 야자열매 등 속이 빈 통을 활용해 만든 악기) 만들기’ ▲‘신나는 편편!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구성됐다.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은 각자 즐거운 경험을 돌아왔다.

예손지역아동센터에서 참가한 한 아동은 “전부터 ‘칼림바’를 갖고 싶었는데, 이번 캠프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면서 “직접 만든 칼림바를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

고 말했다.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에서 참가한 다른 아동은 “편편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웠다”면서 “잘 모르는 친구들과 만나 처음엔 어색했지만 신나게 뛰고 춤추고 함께하다보니 너무 즐거워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최강남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장은 “외부체험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직접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음계를 조립하여 악기를 만들어 보는 뜻깊은 경험을 갖고,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통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면서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 더 밝게 성장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립공원 생태체험, 장애인도 함께 즐겨요

무등산 국립공원 등 전국 14곳서 오감체험

장애인들도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불편없이 즐길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달부터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오감 맞춤형 생태체험’ 과정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립공원 오감 맞춤형 생태체험’은 시각, 청각 등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을 자극하는 체험과정으로 전국의 14개 국립공원에서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6개 국립공원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를 활용한 수어 생태 해설 및 사찰 역사 체험과 국립공원 저지대 걷기 등 체험 과정이 운영된다.

무등산 국립공원에서는 22일부터 10월 17일 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무등산 정상부인 장불재를 탐방하는 체험과정에서는 주상절리와 무등산 고지대에 대한 자연해설을 들을 수 있

다. 또 정상에서 사진촬영을 진행하며 무등산 명품마를 친환경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다.

북한산과 태안해안 등 8개 국립공원에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휠체어를 활용한 바다 및 산악 체험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식 만들기 등의 과정을 운영한다. 가야산과 내장산 등 5개 국립공원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연의 소리 듣기 및 향기 체험과 손끝으로 만나는 풍경 만들기 체험이 열린다.

생태체험과 더불어 소백산 남천야영장과, 한려해상 학동지동차야영장에서는 무장애 야영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오대산 전나무숲, 지리산 상생의길 등 무장애 탐방로 시설에서는 국립공원 오감 맞춤형 생태체험 과정을 연계 운영한다.

국립공원 오감 맞춤형 생태체험 및 무장애 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북구 저출생 대응 아이디어 공모...9월15일까지

광주시 북구가 지역인구 감소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한다. 북구는 인구감소 심각성에 따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저출생 대응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포스터로 다음달 15일까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가족전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북구내 재학중인 초·중학교 학생들이다. 컴퓨터 그래픽을 포함해 표현기법과 방법

에 제한은 없지만 ‘결혼·출산·양육’ 등 저출생 극복의 의미가 담겨야 한다.

북구는 10월 중 당선작을 발표하고 초·등부별로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각 1명) 35만원, 우수상(각 1명) 20만 원, 장려상(각 2명) 각 10만 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포스터는 북구내 다중이용시설 온·오프라인 게시, 각종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에 활용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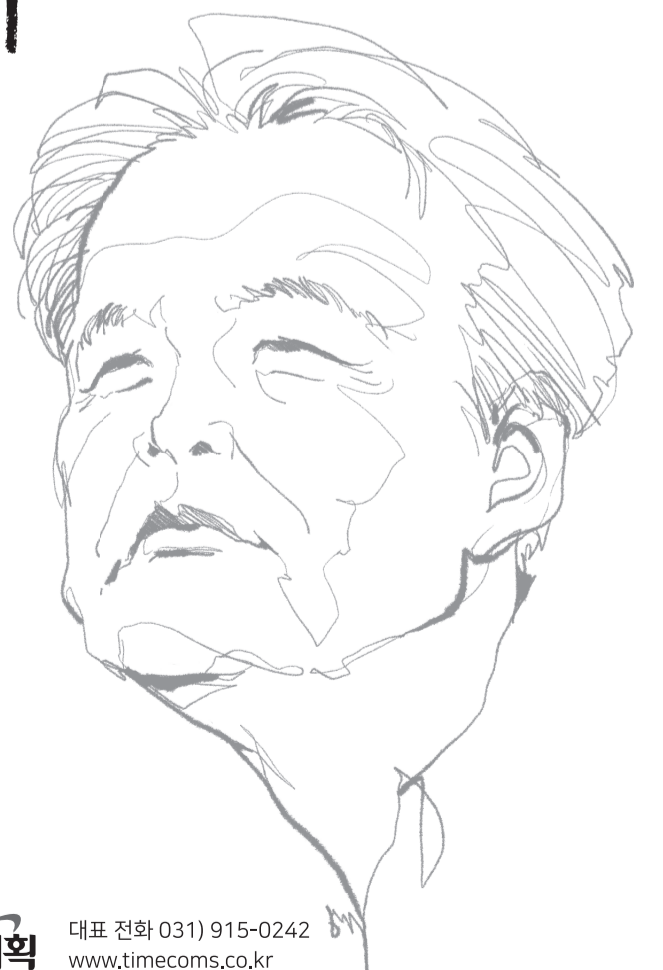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염정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록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